

元曉著書에 보이는 引用書의 一整理

— 특히 宗要關係著書를 中心으로 한 試論 —

安 啓 賢

元曉는 世人이 이미 周知하는바와같이 精力的이며 碩學的이며 博學的인 新羅唯一의 大著述家요 大思想家이었다. 이미 大部分이 散逸되었지만 數十部에 達한 그의 엄청난 量의 著書는 그 精力을 證左하는 것이요 또한 現存되어 오는 各著書에 瀕見되는 引用書는 그의 博學을 證左하는것이 아닐수없으며 아울러 그가 論理를 整然하게 展開식점에 있어서 適所々々に 引用하였다는것은 그 碩學을 證左하여 남음이있다

元曉著書中 現存되어온것은 趙明基教授의 多年間の 勞苦와 研究의 結晶으로 元曉大師全集에 기이 網羅되어 簡便하게 볼수있것끔 되어있는데 全十冊에 收錄된 各著書中の 引用書에對한 多角的인 整理는 元曉佛敎의 再整理가 되는 同時에 新羅思想史의 再整理가 될것이다.

이제 論述하고자하는바는 元曉大師全集第一冊에 收錄된 法華經宗要를 中心으로 宗要關係著書中の 引用書에對하여 試論삼아 一整理를 하여 본것이다.

註 忽滑谷快天著 朝鮮禪敎史 四八頁

一.

法華經宗要是 一佛乘思想에 立脚하여 法華經의 大要를 述한것인데 六門으로 分別하였으니 一에는 大意를 述하고 二에 經宗을 辨하고 三에 證用을 明하고 四에 題名을 釋하고 五에 敎攝을 顯하고 六에 文義

를 消하였다.

本始 法華經의 宗旨가 一乘實相이라 하지만 元曉에있어서는 第二辨經宗者에 보이는바와같이

一乘實相略說有二 謂能乘人及所乘法

이라하였고 衆生界를 떠나서 如來藏이 있지않는 故로 能乘一佛乘人이요, 다시 所乘法은 一乘理・一乘教・一乘因・一乘果의 四種으로 說明하되 一乘理라하는것은 諸佛如來의 三乘說法이 乘의 差別이 아니라 地의 差別인 까닭이며 一乘教라고하는 것은

十方三世一切諸佛 從初成道乃至涅槃 其間所說一切言教, 莫不令至一切智地

인 까닭이라하며 一乘因은

若凡若聖 一切衆生內道外道一切善根 皆出佛性同歸本原 如是本來唯佛所窮

인 까닭이며 끝으로 一乘果는 本有果와 始起果의 二種으로 區分說明하고있다. 그리고 이 理教因果를 합하여

理教因教如是四法 更互相應共運一人到薩婆若 故說四名一乘法

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元曉가 經宗을 辨하여감에있어서 引用한 書目은 寶雲經・金光明經・薩遮尼嚩子經・本乘經・大悲經・法花論・大雲密藏經・花嚴經・涅槃經과 法華經中 方便品・譬喻品・常不輕菩薩品・壽量品・寶塔品이다.

여기 法華經中에서 引用된品을 본다면 方便品에서는 다음과 같다.

(A) 三世諸佛但教化菩薩

(B) 是諸佛亦以無量無數方便 種種因緣譬喻言辭而爲衆生演說諸法

是法皆爲一佛乘故 是諸衆生從佛聞法 究竟皆得一切種智故

그런데 妙法蓮華經 方便品에
註

(A) 佛告舍利弗 諸佛如來 但教化菩薩 諸有所作常爲一事 唯以佛之知見 示悟衆生……舍利弗 是諸佛但教化菩薩 欲以佛之知見 示衆生故

(B) 舍利弗 未來諸佛當世於出世 亦以無量無數方便種種因緣譬喻言辭 而爲衆生演說諸法 是法皆爲一佛乘故 是諸衆生從佛聞法 究竟皆得一切種智

타있어 大略 그대로의 引用임을 알겠고 다음 譬喻品の 引用으로는 一切衆生皆是吾子故

타보이는데 經文에는

我爲衆生之父 應拔其難 與無量無邊佛智慧樂 令其遊戲

이타있어 前의 方便品과는달리 그대로의 引用이 아님을 알수있다. 常不輕菩薩品에 있어서는

我不輕汝 汝等皆當作佛

이라고 引用하였는데 經文에

我深敬汝等不敢輕慢 所以者何 汝等皆行 菩薩道當得作佛……我不敢輕於汝等 汝等皆當作佛

이라고 있으니 이것 역시 經文과는 若干의 出入이 보이며 壽量品の 引用으로 되어있는

如來如實知見 三界之相 無有生死若退若出 亦無在世及滅度者 非實非虛非如非異

는 經文그대로 引用되고있다. 같은로 寶塔品을 보건에

如寶塔品之所廣明

이라고만 하고있다.

第三明能證用에 있어서는 用을 二種으로 區分하여

用有二種 謂開及示 開者開於三乘方便之門 示者示於一乘眞實之相
이라고하고서 開方便門은 一佛乘에서 分別說三하는것을 말하며 眞實相
은 非三非一을 말하는것이다한後에 나아가서 會三歸一・破三立一等等
을 說明하여간다.

이와같이 論述하여가는 元曉는 이門에서 智度論과 法華經中에서 法
師品・方便品・藥草品을 引用하고있는 즉

方便品言 佛以無數方便演說諸法 是法皆爲一佛乘放
라한것은 經文에 보이는

舍利弗過去諸佛以無量無數方便種種因緣譬喻言辭 而爲衆生演說諸法
是法皆爲一佛乘放

의 要旨을 引用한것이며 또한 藥草品の 引用도 經文에 보이는

一時等澗其澤普洽卉木叢林及諸藥草 小根大莖小枝小葉 中根中莖中枝
中葉 大根大莖枝大葉 諸樹大小 隨上中下各有所受

의 要旨을 引用한것이다.

다음 第四釋題名에서는 巧妙・勝妙・微妙・絕妙의 四義가 眞軌를
作하기 때문에 妙法이라고하는것이요 能히 一切秘藏을 顯라고 能히 一
切深事를 說하다고 論述하여가는데 여기에 譬喻品・方便品・神力品이
引用되었는데

如神力品云 以要言之 如來一切所有之法 如來一切自在神力 如來一切
秘密之藏 如來一切甚深之事 皆於此經宣示顯示顯說

을 經文 그대로의 引用이다.

끝으로 第五明教攝門에는 阿舍經・船若經・解深密經・對法論・阿毘達磨論・法花論・寶性論・智度論・瑜伽論・勝鬘經 그리고 法華經에서 信解品・安樂行品・化城品이 引用되고있는바

如安樂行品之 此法花經能令衆生至一切智一切世間多怨難信 先所未說而今說之 是諸如來第一之說 於諸說中最高爲甚深 末後賜與如彼強力之王 久護明珠今乃與之

는 經文과 大差없는 그대로의 引用이며 信解品の 引用은 要旨의 引用이며

化城品云 是諸佛方便分別說三乘 唯一佛乘

이라고 引用된것은 經文에 보이는

但是如來方便之力 於一佛乘 分別說三 如彼導師爲止息故作大城既知息已 而告之言寶盧在近 此城非實 我化作耳

의 前節의 大要이며 또

又此法華經中說言 爲止息故 化作寶城 更止息已經引佛果

라고 引用한것도 이 化城品の 引用이다.

要之 法華經宗要에 보이는 引用書는 華嚴經宗要에 보이는 引用書는 華嚴經 船若經 薩遮尼鞞子經 金光明經 大悲經 勝鬘經 解深密經 阿舍經 大雲密藏藏經 寶雲經 大乘經 法花論 對法論 智度論 寶性論 瑜伽論 阿毘達磨論 그리고 法華經中에서 方便品 譬喻品 信解品 藥草品 化城品 法師品 寶塔品 安樂行品 壽量品 常不輕菩薩品 神刀品이 있다. 우선 그中 法華經의 各品の 引用을 보면 經文 그대로의 引用과 經文과 多少의 差異가 있는 引用과 그리고 全적으로 要旨을 引用한것과의 三種으로 되며, 또한 品을 明示한것과 明示한것의 二種으로 分別될 수

있다.

以上은 法華經에서 引用된 品을 妙法蓮華經의 同品과 對照하여본것인데 다른 引用書도 原典과 對照하여야할것이되 이는 다음 機會에 말겠다.

註 大正新修大藏經 法華部第九卷之一所收 妙法蓮華經

二.

涅槃經宗要에 引用된것으로는 花嚴經 法華經 般若經 維摩經 勝鬘經 楞伽經 薩遮尼禰子經 不增不減經 瓔珞經 二夜經 占密經 大品經 夫人經 金鼓經 淨名經 地持經 智度論 佛性論 攝論 法華論 起信論 地論 瑜伽論 成實論 實性論 攝大乘論 俱舍論 迦毘論과 涅槃經中에서 純陀品 哀歎品 長壽品 金剛身品 四相品 如來性品 菩薩品 聖行品 德王品 師子吼品 迦葉品이 있다.

여기서 涅槃經中에서 引用된것을 본다면 우선 師子吼品の 引用으로 佛性者有因有因有果 有果果有因者卽十二因緣 因因者卽是智慧 有果者卽是阿耨菩提 果果者卽是無上大船涅槃

이라보이는것은 無量壽經의 經文그대로의 引用이며 또한

佛性者 亦色非色 非色非非色 亦相非相非相非非相 云何爲色 金剛身故 云何非色 十八不共非色法故 云何非色非非色 無定相故 云何爲相 三十二故 云何非相 一切衆生不現故 云何非相非非相 不決定故

도 師子吼品の 그대로의 引用이며 또 師子吼品の 引用으로

佛性者名第一義空 第一義空名爲知慧 智者見空不與不空 愚者不見空 與不空

이라한것도 그대로의 引用이다. 그런데 같은 師子吼品の 引用으로

觀十二緣智凡四種 下中智者不見佛性 卽是二乘 上智觀者不見了了了了見故住十住地 上上智者卽了了見 了了見故得阿耨菩提 以是義故十二因緣名爲佛性

이라있는것은 經文에있는

善男子 觀十二緣智凡有四種 一者下 二者中 三者上 四者上上 下智觀者 不見佛性 以不見故得聲聞道 中智觀者 不見佛性 以不見故得緣覺道云云

의 大要임을 알겠고 다음 法王品을보던

善有二種 有漏無漏 是佛性非有漏非無漏 是故不斷 復有二種 一者常 二者無常 佛性非常非無常 是故不斷

은 經文그대로의 引用인데

住九地者見法有 不見佛性

은 經文에

一切薩住九地者見法有性 以是見故 不見佛性

이라한것을 略하여 引用한것이다. 다음 迦葉品에서

如來佛性卽有二種 一者有二者無 有者所謂三十二相八十種好十力四無畏乃至無量三昧是名無有 無者如來過去諸善不善無記乃至五陰十二因緣是名爲無

이라보이는것은 經文의 大要를 引用한것이요 菩薩品에서

若有人能供養恭敬無量諸佛 方乃得聞大涅槃經 所以者何 大德之人乃能得聞如是大事 何等爲大 所謂諸佛甚深秘藏如來之性 以是義故名爲大事

라고 引用한것을 經文과 對照하면 「薄德之人則不得聞」이라는句가 省略되고있다.

이것도 역시 法華經宗要에서 法華經引用의 態度와같이 涅槃經을 引用하되 經文그대로의 引用과 經文을 略引한것과 또한 經文의 大要를 引用한것과의 三種類로 分別할수있겠다.

註 新修大藏經 第二卷之三 大觀涅槃經

三.

大慧度經宗要에서는 引用書로서 瑜伽論 實性論 佛性論 攝大乘論 廣百論頌 勝鬘經 不思議殊勝神力如品 金鼓經 二夜經 般若波羅蜜經 中阿含 解深密經 仁王經 華嚴經이보이며 無量壽宗要에서는 任王經 鼓音王陀羅尼經 薩遮尼犍子經 本業經 彌勒發問經 不增不減經 解深密經 楞嚴經 觀無量壽經 華嚴經 觀經 瑜伽論 攝大乘論 唯識論 實性論 智度論 起信論이보이며 彌勒上生經宗要에서는 阿舍經 定意經 本行經 因果經 釋迦證果經 梵網經 十住結結經 觀藥王藥上經 賢愚經 賢劫經 菩薩處胎經 一切智光仙人經 金剛力士經 彌勒成佛經 大方等陀羅尼經 彌瑜下生經 金剛般若經 觀佛三昧海經 華嚴經 法華經 俱舍論 藏論 雜心論 瑜伽論이 引用되고있다.

註 江田俊雄 新羅佛敎に於ける淨土敎 支那佛敎史學 第三卷特輯號

四.

以上을 綜合하여 볼때 우리는 宗要關係의 元曉著書에서 다음과같은 引用書를 찾을수있다.

華嚴經 法華經 般若經 薩遮尼犍子經 金光明經 大悲經 勝鬘經 解深密經 阿舍經 大雲密藏藏經,寶雲經 大乘經 二夜經 維摩經 楞嚴經 不增不減經 瓔珞經 占密經 小品經 夫人經 金鼓經 淨名經 地持經 仁王

經 鼓音王陀羅尼經 本業經 彌勒發問經 彌勒上生經 彌勒下生經 觀無
 量壽經 大般無量壽經 觀經 定意經 本行經 因果經 彌迦證果經 梵網
 經 十住結結經 觀藥王藥上品 賢愚經 賢劫經 菩薩處胎經 一切智光仙
 人經 金剛力士經 彌勒成佛經 大方等陀羅尼經 觀佛三昧活經 法花論
 對法論 智度論 寶性論 瑜伽論 阿毘達磨論 佛性論 攝大乘論 起信論
 地論 成實論 俱舍論 迦退論 廣百論頌 唯識論 雜心論

이와같이 多數의 引用書를 볼수있으니 元曉가 얼마나 博學이였든가를
 알기에 足하다.